

프랑스, 플라스틱 발판삼아 기지개!

크레디리요네은행, 산업생산 1.2% 상승 기대 ... 제약·화장품도 성장세

2001년과 2002년 담보상태를 보인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2003년에는 제약, 방위산업용 전자설비,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1.2%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프랑스 크레디리요네은행에 따르면, 2003년 프랑스의 산업생산은 2002년보다 다소 나아지겠으나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1.2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설비재는 방위산업용 전자설비 및 기계설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방위산업용 전자설비는 2002년 라파렝 정부가 방위산업설비 구매계획을 밝힌 바 있어 생산이 늘어나고, 기계설비는 이웃 독일의 기계업종 경기회복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.

또 조선은 주문감소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정보·통신분야는 2002년보다 다소 감소 폭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. 자동차 분야 중 승용차는 2002년 수준을 유지하나 승합차는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다.

중간재 산업에서는 플라스틱, 제지, 금속가공 분야가 각각 4.0%, 2.0%, 1.0% 상승하면서 산업활동이 다소 활발히 이루어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. 페인트(0.4%)도 미미하나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.

한편, 소비재는 가계소비 증가에 힘입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, 의류, 직물, 신발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2003년에도 침체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.

프랑스 산업전망(2003)

설비재	방위산업용 전자설비(+5.0%), 정밀기계(+1.9%), 기계설비(+2.1%), 승용차(+0.5%), 항공설비(-4.0%), 승합차(-5.0%), 조선(-10.0%), 정보통신(-10.0%)
중간재	플라스틱(+4.0%), 제지(+2.0%), 금속가공(+1.0%), 페인트(+0.4%), 전자부품(0%), 자동차부품(0%), 제철(0%), 주물금형(-4.0%)
소비재	제약(+10.0%), 화장품·향수(+5.1%), 식료품(+1.5%), 가구(+1.5%), 전자제품(0%), 섬유(-10.0%), 신발(-12.0%), 의류(-15.0%)

제약산업(10.0%) 분야는 가격이 저렴한 일반의약품 소비권장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증가로 2002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. 화장품·향수는 5.1% 성장이 기대된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3/27>